

“나눔은 가장 행복한 투자입니다”

나눔 플레너 장순희씨가 전하는 '사랑 나누기'

1명의 나눔이 누군가의 100%로 재탄생

행복투자 늘수록 어려운 이웃들 지켜내

100명의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둘러싼 이웃을 이해하는 일, 받아들여 주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51명은 여자이고 49명은 남자입니다. 26명은 아이들과 74명은 어른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8명은 노인이고 4명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는 10명이 30%를 가졌고 가장 적게 버는 10명의 부를 합쳐도 1%가 넘지 못합니다.

7명은 부모의 부를 대물림 받지만 4명은 빈곤을 대물림 받습니다. 아이들 중 40%는 3개이상의 학원을 다니거나 매월 가족과 외식을 하지만 13%의 아이들은 급식비를 못내거나 학교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30명의 사람들이 80%의 에너지를 쓰지만 10명은 에너지 빈곤층이며 2명은 연탄으로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세상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슬퍼하기 보다 진정 이 마을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90명은 우리손으로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중 63명은 기부를 통해 미래에 투자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겨울, 우리마을 사람들 부지런히 희망을 모으는 중입니다.

작은 사업장을 하며 매월 일정액을 나누는 '착한가게'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며, 은행창구에는 자꾸 눈길 가는 빨간 사랑의열매가 나눔은 행복한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티어를 맨 직장은 급여의 자부



사랑의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3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2010년 사랑나눔 모금 캠페인에 돌입했다.

리를 모아주고 집집마다 전달되는 지로용지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망년회나 송년회는 이웃과 함께 하자는 성찰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방송에서는 매일매일 나눔을 실천한 행복한 이름들을 들려줍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반지를 내놓던 1998년, 폭설이 있던 2005년, 돌나리를 겪던 2007년, 우리마을 최악의 경

제년이 겹치는 2009년에도 우리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려운 이웃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절망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1명의 나눔이 누군가의 100%로 다시 태어나는 일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명의 마을사람들은 나눔을 통해 가장 행복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팀 차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 막달레나집 시각장애인에 12년째 목욕봉사

남동성당 빈첸시오회·유정천 사우나 고맙습니다

광주시 동구 장동에서 표구재료상을 하고 있는 양선모(70·사진 맨 왼쪽)씨.

작업실 달려오는 매주 금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매주 금요일은 시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명동 막달레나집 회원들과 함께 목욕탕에 목욕을 가는 날이다.

70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인 차량으로 앞 못보는 불편한 장애인을 태우고 목욕탕에 가 목욕과 면도를 마치고, 다시 막달레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3년째 하고 있다.

양씨는 남동 성당 빈첸시오회 회

원, 목욕봉사는 12년째 하고 있으며, 막달레나 집 장애인식구들을 알게 된 건 30년이 다 됐다.

조승래, 문재순 회원들과 함께 목요일과 금요일로 나누어 30~60대에 이르는 7명의 장애인을 매주 목욕 봉사하고 있다.

손자서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이처럼 목욕을 할 수 있게 된 건 광주시 동구 화동 유정천 사우나의 양정천 사장 덕분이다. 양정천 사장은 막달레나집의 시각장애인 소식을 접하고 선풍 먼저 연락을 해와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하라고 권한 것.

유정천 사우나의 이영수 부장은 “사장님께서 평소 장애인복지에 관심



이 많아 막달레나집 회원들은 물론, 타 복지단체 회원들의 경우도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만 받는 등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번은 목욕탕 로비를 지나가던 시각장애인 한 분이 로비에 놓여있던 고가의 도자기를 깨뜨려버렸다. 자원봉사자 양씨는 변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극구 만류했다는 것. 그만큼 유정천 사우나 양정천 사장의 너그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양씨는 양사장의 후원 덕분에 매주 장애인들을 데리고 목욕가는 일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또 여기저기서 차량목욕봉사 소식을 접하고, 먹을 것 등을 후원해주는 분도 많다고 한다.

봉사를 하다보면 본인의 봉사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양씨의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박영신(광주시 동구 신수2동)

클릭! 맛집



애호박 송송송... 속이 확~

싱싱한 고기 족석에서 끓여내 한번 가면 단골되는 맛집

■화순읍 '진미식당' 애호박국

어쩔, 모내기하는 날이 기다려졌던 것은 눈두렁에 아무렇게나 앉아 먹던 돼지찌개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돼지고기와 애호박, 두부를 송송 썰어 일컫나게 끓여낸 국물이 뜨거운 밥을 맡아 온 마을 사람이 한통속이 돼 먹던 그 맛.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오일장 입구의 진미식당(윤영복) 애호박국은 옛 돼지찌개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몇몇 단골들이 입소문 나면 자리없어 못 먹을까 봐 숨겨두고 있던 집.

비결은 단백한 맛에 있다. 육수를 사용하지 않고, 화순의 맑은 물만 넣어 끓인다.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다.

손님 잡겠다고 육수에 이것저것 넣다보면 원재료의 맛까지 사라져 버린다. 아무것도 넣지 않아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맛이 나고, 애호박은 애호박 맛이 나는 지

극히 자연스러운 조리법을 따른다.

또 하나, 그날 잡은 싱싱한 고기를 족석에서 끓여내 는 것도 그윽한 국물 맛의 비결이다. 미리 끓여 놓으면 고기가 질겨지고, 애호박도 물러진다.

주문을 받아 20여분, 고기가 익을 만큼만 끓여 신선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인근 장에서 가져온 애호박도 탱글탱글하다.

양념도 별것 없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를 넣는 데도 시원한 맛을 낸다.

20년간 이곳을 지켜온 주인장 인심도 후해, 애호박 국 그릇이면 소주 한 병 비우고도 밥 한 그릇 먹을 고기와 국물이 충분히 남을 정도다.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어 맛을 낸 돼지고기 주물럭과 시금치 볶음은 김치찌개도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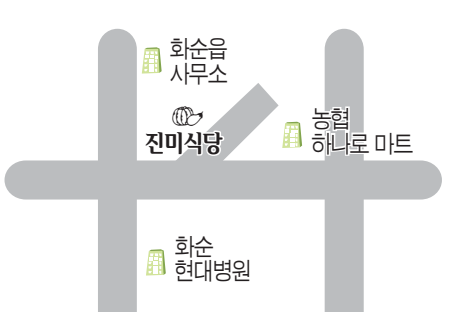
이 집에 올 때는 몸이 딱 달라붙는 바지는 입지 말라. 먹다보면 배가 나와 움직이기도 힘들어 질테니. 애호박국 5천원, 주물럭 6천원. 문의 061-373-2770.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눔기자 mjna@kwangju.co.kr



<주물럭>

■찾아가는 길



대인동삼일부동산
☎(T)223-1140, 5210 ☎(F)011-8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관서건4번)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며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T)011-609-5221
(구 상무대 정보)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590평 건물4,500평(대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 750평(대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용사 12억
• 건물 보증금 29억 월세 6,000만원 (대지 110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임무용) - 매가 평당 750만원
• 250평(유용가능) - 매가 평당 1,200만원
• 500평(임무용) - 매가 평당 1,200만원
• 136평(유용가능) - 매가 평당 1,000만원

▶기타용도
(농장) 동산등 약 2만2천평 평당 10만원
(주거지역) 청동동 2,300평 평당 45만원 (요원등 특약)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가 평당 450만원 개발등기 있음
• 학원, 특사실, 사무실 등 특약
• 세정 아몰렛주변 명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환영

●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금산공인중개사
T.881-5688 H.011-801-5354

주유소부지 급매매
위치 : 해남군 강진군 경계 (상전면, 국도변, 최고확률조건) 대지 1450평, 도로정류 1250평 허가유 주유소 허가 및 건축허가 특

GS와 계약
(건축비 3억 보조 및 주유기 무료제공계약) 해남 원도 진도 출발 상행선 광주도약 80km 특목직업원로

강진해남경계 아차말 지점 매매가 3억
(금호동 새광주역 건너 2소환도로변)

상무 신도시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 지 ■ 약 2850㎡, 가격 협의중

• 근린시설, APT 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 (광주사행 접근성 5.18 점수)번
• 광주 최고의 상권
•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한길부동산중개
광주 서구 광천동 1301-1(상무지구 5.18점수) 앞
상담전화 ☎ 011-647-4114

주유소 매매 (교환도가능)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로변, 위치좋은,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상담전화 ☎ 011-647-4114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010-7637-7743
011-623-8972, 010-4703-6223

광문부동산가서 전속계약을 하면 크비밀리에 매매도 빨리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받아준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광문부동산 한번 가봐야겠네!

저희 부동산에서는 신규,사무와, 목욕탕 겸질 방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후에는 절대적으로 후회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 인종→서해대교, 평택항 부근 (관광특구, 물류 중지지역 근접) 답→자연동 지약 7,484㎡ 급매매 ㎡당 13만원, 투자가치 최고지역 년평균㎡당 1만원이상 상승지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순천 • 여수 • 광양지역, 임대매매 다량확보!
◎목포 • 해남지역 임대매매 다량 확보!
◎전주 • 익산 • 군산 지역 임대매매 다량 확보!
◎광주 • 광역 지역 임대매매 다량 확보!
◎대전 • 수원 • 전국 물건 가능합니다.

모텔 임대, 매매 전문
교환 → 토지, 대지, 임야 소유자께서는 현금나오는 motel 물건과 물물교환 대환영합니다.

세상을 높게, 넓게 펼쳐 드리는 부동산 컨설팅! 광문

경매전문회사
HK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전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